



육군 35사단 제독차량이 남원시내를 방역하고 있다.



인보호장구를 갖춘 여수해경이 응급환자를 후송하고 있다.



정읍시는 드론 6대를 띄워 공공시설 161곳을 공중 방역한다.



신안군은 구내식당 좌석을 한방향으로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

軍 제독차량도 투입...드론 띄워 공중 방역...농업대학선 유튜브 강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퇴치를 위해 육·해·공 차단 작전이 펼쳐지고 있다. 시내에 군(軍) 제독차량이 등장하고, 드론을 띄워 공중 방역에도 나섰다. 구내식당은 마치 교실처럼 한방향 좌석으로 바뀌었고, 실습 위주인 농업대학마저 온라인 강의로 진행한다. 경제 위축이 심각해지면서 급기야 경제 활성화 방안 현상공모에 나선 지자체도 등장했다.

“코로나19 막자”...육·해·공서 펼치는 치열한 차단작전

◇육군35사단 제독차량 남원 투입
남원시가 군부대 제독차량을 이용해 주요 다중 이용시설에 긴급 방역을 실시했다.
육군 35사단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제독차량 2대(인원 6명)를 고정 배치하고 다중이용시설(광한루, 남원역, 터미널 등)과 보건소, 의료원 등 남원시내를 대상으로 4일부터 제독을 실시하고 있다.
남원시는 소독제(60 l)와 방호복을 지원하며, 군부대와 소독 주기를 협의해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해경, 불법어선 나포 대신 퇴거
해경은 코로나19 해상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불법 외국어선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작전도 '나포' 대신 '퇴거'로 전환했다.
목포·완도·여수해경은 현장대책반을 24시간 가

동하고, 의무경찰의 외박·외출을 제한하고 있다. 경비함정은 검문검색 전·후 개인 신체 및 복장 등 방역을 철저히 하고, 외국인 선원 등 밀입국자 접촉에 대비해 개인 보호장비 착용을 강화했다. 정박함정 감염자 발생에 대비해 부두별 대기근무자를 2명에서 3명으로 격상해 운영 중이다.

◇정읍시, 드론 띄워 161곳 공중방역
정읍시는 지역사회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드론을 활용하고 있다.
오는 13일까지 초·중·고 학교와 23개 읍·면·동 등 공공시설 161곳을 중심으로 드론 방역을 실시한다. 투입되는 드론은 총 6대다. 드론 1대당 10 l 분량의 방역약품을 탑재, 1분에 08~2.6 l의 소독제를 분사함으로써 넓은 면적에서 효율적인 소독

이 가능하다.
정읍시는 건물 외부나 외곽지역의 효과적인 방역을 위해 드론 투입을 결정했다. 유관단체와 협업을 강화해 드론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신안군, 구내식당 식사 한방향
신안군이 '코로나19'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구내식당에서 마주보기 식사를 금지했다.
신안군은 지난달 20일부터 외부인 식사를 차단했으며, 2일 점심시간부터 구내식당에서 한방향에서만 식사할 수 있도록 좌석 배치를 바꿨다. 감염 방지를 위해서는 얼굴을 맞대지 않고 2m 이상의 거리를 이격해야 한다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 대응 지침을 따랐다.
사무실 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으며 특히 구내식당 출입 시 마스크 착용과 반드시 손 소독제를 사용 후 출입하도록 하고 배식과 식사 중에는 대화를 자제하는 등 운영방침을 마련했다.
◇함평군, 농업대학 강의 유튜브로
함평군은 지난 4일 신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농업대학 개강식을 유튜브를 통해 개최했다.

함평군은 이날 유튜브 채널 '함평n센터'를 개설하고 개강식과 함께 농업분야 우수 강사진의 교육을 사전 업로드 한다. 15차례 예정된 집합교육은 잠정 연기했다.
실무위주인 농업대학의 개강식과 강의가 온라인으로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남군, 지역경제 활성화 공모
해남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시책 발굴을 주제로 군민제안 공모를 실시한다.
제안 내용은 소상공인 복지 향상과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 경영애로 타개 방안 등 다양한 군민의 생각을 모아 지역 경제 활성화 시책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신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또는 해남군 홈페이지(www.haenam.go.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해남구청 기획실 또는 읍면사무소에 우편·서면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들은 심사를 거쳐 최대 300만원의 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비롯해 군정에 도움이 되고 판단된 제안은 소정의 상품도 지급한다.

◇익산시, 대학가 '공실 원룸' 피해 보전
익산시는 중국인 유학생 원룸대 기숙사 전원 입소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대학가 원룸의 피해를 보전한다.
앞으로 원룸 입주자는 자가격리 해제증명서를 발급받은 유학생으로 한정하게 된다.
다만, 원룸의 경우 코로나19로 손실을 입은 합당한 사유가 입증돼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익산시가 코로나19 지역감염 예방을 위해 입국하는 중국인 유학생을 전원 기숙사에 입소시키기로 한 조치로 인해 대학가 원룸 공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후속 방안이다.
익산시는 원룸 업체들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14일 이상 격리를 마치거나 검체를 채취해 음성판정을 받은 중국인 유학생에 한해 자가격리 해제증명서를 발급하고 원룸에 입소할 수 있도록 협의했다.
이 같은 상생 방안 마련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하고 침체된 대학가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전남·전북 취재본부

정읍시·LH, 청년주택 사업 본격화

40억원 들여 행복주택·도시재생센터 건립

정읍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추진하는 '시기 어울림 플랫폼(청년주택·조감도)' 조성 사업을 본격화 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2017년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중심시가지형)의 하나로 추진된다.
총 사업비 40억원을 투입해 2021년 9월

까지 도시재생 네트워크센터(166㎡)와 행복주택 17가구를 짓는다.
네트워크센터는 마을투어 정보센터와 원도심 내 청년창업 네트워크를 형성해 브랜드 창출, 디자인 개발, 웹페이지 구축 등 청년산업의 신성장 거점 역할을 한다.
행복주택은 청년과 대학생, 신혼부부, 노약자 등 주거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한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연 3000만원 3년간 지원 '군산형 유망 강소기업' 모집

군산시, 5개사 기술·판로 지원

군산시는 신성장동력과 건강한 일자리를 창출할 '2020년 군산형 유망 강소기업'을 신규 모집한다.
5일 군산시에 따르면 전북지역 지자체 최초로 성장 가능성과 기술경쟁력이 높은 기업을 발굴해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시행할 계획이다.
신청 기업은 3년간 매년 3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전담 PM(Project Manager)을 통해 중장기 성장전략을 수립하고 기술혁신 활동과 판로 지원, 경영 및 품질혁신 등 기업 수요에 맞는 맞춤형 패키지를 받게 된다. 군산시는 신청서를 받아 서류심사와 심층평가를 거쳐 최종 5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자격은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으로 본사(공장) 또는 주 사업장이 군산시에



군산시가 신성장 동력과 건강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2020년 군산형 유망 강소기업' 5개사를 신규 모집한다. 사진은 지난해 유망 강소기업 인증서 수여식. <군산시 제공>

소재해야 하고, 창업한 지 3년 이상,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의 제조업으로 최근 3년 결산 매출액이 400억원 미만이면 된다.
올해는 R&D 기반의 제품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지역 내 연구기관과 연계 협력도

고창 동리국악당, '이야기가 있는 판소리' 공연

고창군이 오랜 기간 선보였던 전통 판소리 무대에 새로운 변화를 시도할 '나도 귀명창'을 선보인다.
5일 고창군에 따르면 동리국악당은 해설이 있는 판소리 다섯마당 '동리따라 소

리따라 나도 귀명창' 공연을 3월부터 12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마지막주 목요일 오후 7시에 연다. '나도 귀명창'은 팔 그대 로 판소리를 듣는 관객이 주인공이 되는 '이야기가 있는 판소리' 무대다.

인문학적 접근을 통해 관객들에게 판소리 속에 흐르는 삶의 가치를 찾아보는 시간으로 판소리의 정확한 의미와 뜻, 기존의 판소리 공연에서는 알 수 없었던 신재효 판소리 사설 속의 의미 등을 전문가의 깊이 있는 해설을 통해 만나게 된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0505-362-90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본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